

# 중국에 대한 아프리카의 인식과 결정요인: 아프로바로미터(Afrobarometer)를 통한 실증분석<sup>+</sup>

강유덕\* · 임태훈\*\*

- I. 서론
- II. 중국-아프리카 관계
- III. 실증분석(1): 거시 데이터 분석
- IV. 실증분석(2): 미시 데이터 분석
- V. 결론

주제어: 중국, 아프리카, 인식, 결정요인, 아프로바로미터

## |국문초록|

중국은 지하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아프리카에 집중적인 투자를 하였고, 2000년대 이후에는 차관과 건설프로젝트를 결합하는 방식으로 아프리카 인프라 시장에 대거 진출하였다. 오늘날 중국-아프리카 무역-투자 관계는 이러한 중국의 대아프리카 정책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이 연구는 아프리카인들이 중국에 대해 갖고 있는 이미지를 데이터를 통해 검토하고, 그 결정요인을 미시적 차원과 거시적 차원으로 구분하여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거시 데이터를 통해 분석한 결과, 대중국 무역 및 투자유입은 아프리카의 중국에 대한 이미지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중국으로부터의 차관 도입은 중국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제도적 수준이 낮을수록 중국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시 데이터를 통한 분석결과 개인의 특성 또는 인식에 관한 다양한 변수는 중국에 대한 개인적 차원의 이미지 형성을 비교적 명확하게 설명했다. 연령이 낮을수록, 여성보다는 남성이,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중국에 대해 긍정적 이미지를 갖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경제적 상황을 긍정적으로 평가할수록, 정치적 상황을 긍정적으로 평가할수록 중국에 대한 인식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국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이 크다고 평가하는 경우, 중국에 대해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설명변수 자체가 설문 조사의 결과를 기반으로 도출된 것이므로 실증분석의 결과를 분석할 때에는 정성적 사례연구를 통해 보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 『국제관계연구』 제26권 제1호(2021년 여름호).

<http://dx.doi.org/10.18031/jip.2021.6.26.1.77>

✦ 이 연구는 한국외국어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의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

\* 한국외국어대학교 Language & Trade 학부 부교수 (제1저자)

\*\* 한국외국어대학교 Language & Trade 학부 조교수 (교신저자)

## I. 서론

21세기에 국제관계에 있어 나타난 가장 큰 변화는 중국의 부상이다. 1979년 대외개방을 시작한 이래 중국은 오랜 기간 동안 제3세계로 머무르며 잠재력이 높은 개발도상국으로 간주되었다. 실제로 중국의 1인당 GDP는 1990년 300 달러를 다소 상회하는 수준이었으며, 세계무역기구(WTO: World Trade Organization) 가입 직전인 2000년에도 1,000 달러에 불과하여 오랜 기간 동안 세계은행(World Bank) 기준 저소득 국가(low-income country)로 분류되었다. 반면에 중국 경제는 1990년대 초부터 30년 이상 연평균 10%에 이르는 고속성장을 이루었고, 2019년에는 1인당 GDP가 1만 달러를 상회하면서 중고소득 국가로 자리를 잡았다. 중국 경제의 고속성장은 인구 규모를 감안할 때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일이며, 세계경제의 질서를 송두리째 뒤바꿔 놓았다. 국제연합(UN: United Nations)이 추진한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는 빈곤탈출에 있어 큰 성과를 거두면서 종료되었는데, 그 이면에는 중국의 고속성장과 이에 따라 중국 내 빈곤인구가 극감한 것과 관련이 매우 깊다. 이러한 고도성장을 통해 중국은 2001년 WTO에 가입한 이후, 프랑스, 영국, 독일을 차례로 밀어내고 경제 규모 순위가 상승하였고, 2010년에는 일본을 3위로 밀어내면서 세계 2위의 경제대국으로 자리를 잡았다. 향후 중국 경제가 어떠한 변화를 겪을지 속단할 수는 없지만, 지금과 같은 성장경로를 감안할 때, 수년 내에 세계 1위의 경제규모를 갖게 될 가능성이 높다.

중국의 부상은 세계 경제에 있어 기회이자 위협으로 다가왔다. 오늘날 중국은 경제대국의 위치에서 벗어나, 국제관계 속에서 영향력을 넓혀 왔다. 이에 따라 중국을 바라보는 세계의 인식도 점차 변해왔다. 이 과정에서 중국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와 큰 갈등을 빚었고, 이 문제는 통상분쟁의 영역을 벗어나, 기술패권 경쟁, 군비 경쟁의 양상으로 까지 확대 추이를 보이고 있다. 유럽에서도 중국기업의 유럽 핵심기술 기업에 대한 인수합병에 경계심이 커지면서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은 2020년 10월 외국인직접투자(FDI: Foreign Direct Investment) 스크리닝 제도를 도입하였고, 국제정치에 있어서는 중국 내 인권 문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

편, 중국은 2000년대 초부터 아프리카 및 중남미에 자원 확보를 목적으로 한 대규모의 투자를 단행했고, 그 규모는 점차 확대되어 왔다. 또한 중국의 공적개발원조 및 차관 제공을 아프리카에서의 인프라 사업 수주와 조합함으로써 외교와 경제(무역·투자) 양쪽에서 동시에 큰 성과를 거두어 왔다. 이러한 중국의 원조 및 협력은 주권존중 및 내정불간섭을 원칙으로 내세움으로써 수혜국의 '바람직한 거버넌스(good governance)'를 조건으로 한 서방 국가들의 원조와 큰 대조를 이루었다. 많은 학술 및 정책연구들은 이러한 중국의 대아프리카 정책에 대해 엇갈린 평가를 내놓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연구는 아프리카인들이 중국에 대해 갖고 있는 인식을 파악하고, 이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중국의 아프리카 진출은 안정적인 원자재 확보와 건설 인프라 사업 수주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전략적 동반자 또는 국제사회의 지지 세력 확보에 주력하는 모습을 보인다. 아프리카 국가 입장에서 중국의 원조와 건설 인프라에 대한 참여는 외화확보와 인프라 공급의 확대라는 장점이 있다. 반면에 중국의 원조와 해외투자가 대상국의 거버넌스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해외 학자들을 중심으로 비판이 계속되었고, 이와 같은 상황은 아프리카 내부에서도 지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이 연구는 아프로바로메터(Afrobarometer) 데이터를 활용하여 중국에 대한 아프리카인들의 긍정적/부정적 인식을 파악하고, 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을 실증분석한다. 특히 이 연구는 거시적 차원(국가 단위)과 미시적 차원(개인 단위)에서 동시에 실증분석을 실시한다는 점에서 보완적인 결론의 도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론에 이은 본 연구의 목차는 다음과 같다. 제Ⅱ장에서는 중국-아프리카 관계를 정치와 경제로 구분하여 살펴보고, 선행연구를 검토한다. 제Ⅲ장에서는 중국의 아프리카에 대한 진출 현황과 진출 방식을 유형화하여 설명한 후, 이를 통해 아프리카 경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 및 역할을 고찰한다. 제Ⅳ장에서는 중국에 대한 아프리카인들의 인식을 거시적 차원과 미시적 차원에서 실증분석한다. 이를 위해 방법론과 데이터를 소개한 후, 분석결과를 비교한 후, 제Ⅴ장에서는 분석결과를 감안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 II. 중국-아프리카 관계

### 1. 중국-아프리카 관계의 변화

아프리카의 근대사가 유럽에 의한 식민지배로 점철된 반면, 아프리카-중국 간의 관계는 근대사를 통틀어 접촉점이 거의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프리카와 중국의 관계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연이어 독립한 아프리카의 국가들과 새롭게 수립된 중화인민공화국이 국제사회에서 연대관계를 구축하면서 시작되었다. 1955년 인도네시아 반둥(Bandung)에서 개최된 아시아-아프리카 회의는 중국이 아프리카 국가들과 공식적인 연대를 표방하는 시발점이 되었다. 당시 반둥 회의는 '세계 평화와 협력의 추진에 관한 선언(Declaration on Promotion of World Peace and Cooperation)'을 통해 내정불간섭, 영토 및 주권의 상호존중, 상호불가침 등 10대 원칙을 채택하였다.<sup>1)</sup> 중국은 반둥 회의에서 채택된 원칙들을 적극 지지하였고, 이때부터 아프리카 국가들의 우호세력으로 자칭했다. 이후 1970년대 후반까지 중국과 아프리카 국가들 간에는 상호 간의 필요에 의한 정치적 연대가 형성되었다. 당시 중국은 서방과는 체제적 경쟁 관계를 형성하였고, 1960년대 초에는 소련과 국경분쟁을 겪게 되면서 아프리카와 같은 제3세계 국가들의 정치적 지지가 필요했다. 아프리카 국가들 입장에서도 자국의 독립을 지지할 제3의 후원자가 필요했는데, 이러한 이유로 중국-아프리카 간에는 국제무대에서 정치적 연대가 형성된 것이다. 중국은 1956년 이집트와 수교한 것을 시작으로, 1970년대 말까지 아프리카의 53개 국가 중 33개국과 수교관계를 구축했다. 중국의 경제적 위치가 열악한 상황이었지만, 1956~1977년의 기간 중 중국은 대외원조의 58%인 약 25억 달러를 아프리카 국가들에게 제공했다. 이러한 관계구축을 위한 노력이 빛을 발한 것은 1970년대 초이다. 특히 1971년 10월 국제연합(UN) 총회 결의 제2758호를 통해 중국은 당시

1) 반둥 회의에서 채택된 평화 10 원칙은 다음과 같다. ① 기본적 인권 및 유엔 헌장의 목적과 원칙의 존중, ② 국가의 주권 및 영토 통합의 존중, ③ 인종과 국가 간의 평등, ④ 내정불간섭, ⑤ 단독 혹은 집단적 자위권의 존중, ⑥ 집단 방위협정을 대국(大國)의 특수 이익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내전(內戰) 불간섭, ⑦ 침략 및 침략의 위협, 병력 사용 금지, ⑧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 ⑨ 상호 이익과 협력 증진, ⑩ 정의와 국제 의무의 존중

의 중화민국(대만)이 갖고 있던 UN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 지위를 승계하게 되었는데, 여기에는 아프리카 국가들의 지지가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이 결의안은 찬성 76개국, 반대 35개국, 기권 17개국, 불참 3개국으로 통과되었는데, 찬성을 표시한 76개국 중 아프리카 국가의 수는 26개국으로 1/3 이상을 차지했다.

냉전 상황이 고착화되어 안정기에 접어든 1980년대에 중국-아프리카의 관계는 다소 답보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는 냉전과 중소 분쟁의 기간 중 중국의 대아프리카 정책이 자국의 입지 강화를 위한 한 축이었음을 의미한다. 1979년 중국은 대외개방을 시작한 이후 주로 미국, 소련과 경제협력을 모색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미소 간의 경쟁관계를 활용하여 경우에 따라 양측으로부터 이익을 구하는 모습을 보였고, 외국인 투자유치를 통해 국내 산업 기반을 조성하는데 주력했다. 따라서 구매력이 낮고 자본 및 기술협력을 기대할 수 없었던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협력 구축은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되었다. 반면에 1989년 천안문 사태를 계기로 중국은 다시 한 번 국제사회에서 고립되는 상황에 직면했고, 이에 대한 돌파구 중 하나로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정치·경제적 협력 강화를 도모하게 된다. 특히 서방이 중국의 인권탄압을 강력하게 비판한데 반해, 아프리카 국가들은 주권존중과 내정불가침의 원칙에 의거 서방의 비판 대상이 된 중국 정부를 옹호 또는 침묵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중국 정부는 아프리카가 갖는 정치적 중요성을 재인식하게 되었고, 중국-아프리카 관계는 전환기를 맞이 했다. 또한 1990년대 중반부터 중국은 대외경제 관계를 중시하기 시작했고, 이에 다양한 형식의 대아프리카 외교전략이 추진되었다. 중국 정부가 활발하게 활용한 외교 방법은 정상 또는 고위급 관료의 방문을 통한 순방외교였다. 중국의 최고위층은 빈번하게 아프리카를 방문하여 고위층 간의 유대관계를 구축하는 한편, 다자포럼을 정례화하였다. 대표적인 예는 중국-아프리카 협력포럼(FOCAC: Forum on China-Africa Cooperation)으로 2000년에 장관급 회담으로 시작하였으나, 2006년 3차 포럼부터는 정상급으로 격상되어 3년마다 중국과 아프리카 국가를 번갈아가며 개최되었다. 중국-아프리카 협력포럼의 연혁은 <표 1>에 표시했다.

**<표 1> 중국-아프리카 협력포럼(FOCAC: Forum on China-Africa Cooperation)**

	일시	장소	아프리카 참가국
1차 포럼	2000년 10월	중국 북경	44
2차 포럼	2003년 12월	에디오피아 아디스아바바	44
3차 포럼	2006년 11월	중국 북경	35
4차 포럼	2009년 11월	이집트 샤름엘셰이크	49
5차 포럼	2012년 7월	중국 북경	50
6차 포럼	2015년 12월	남아공 요하네스버그	44
7차 포럼	2018년 5월	중국 북경	53

출처: Forum on China-Africa Cooperation<sup>2)</sup>

## 2. 중국-아프리카 경제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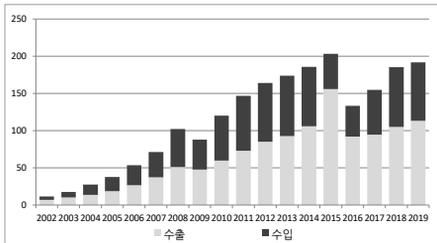
중국의 무역에서 아프리카가 차지하는 비중은 낮은 편이다. 2000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이 중국의 총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수출이 1.4%, 수입이 2.0%에 불과했다. 이 비중은 2018년에는 수출과 수입의 비중이 각각 2.9%와 4.1%로 증가하였다. 다만, 수입의 경우, 원유 및 광물자원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아 수출입 품목의 구성에 있어 전형적인 비대칭 구조를 갖고 있다. 지난 20년간 중국의 대외무역은 크게 팽창하였는데, 중국-아프리카 무역 역시 큰 성장을 기록했다. <그림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중국-아프리카 무역은 중국이 전반적인 무역흑자를 기록하는 가운데, 2002년에는 115억 달러 규모였는데, 2015년에는 2,000억 달러 이상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중국-아프리카 무역은 경제성장률에 따른 수요 외에도 국제 원자재 가격의 등락에 따라 큰 영향을 받는 것이 특징이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은 2009년에는 감소하였고, 국제 원자재 가격이 급락한 2015년 이후에도 감소한 바 있으나, 가격 요인을 제외하면 전반적인 증가세를 유지해 왔다. 2002~2019년의 기간 중 중국의 대아프리카 무역은 수출은 11.2배, 수입은 10.6배 증가하였다. 이와 같은 증가세는 미국-아프리카 무역의 경우와 비교할 경우 그 차이가 극명해 진다. <그림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미국의

2) Forum on China-Africa Cooperation, <http://www.focac.org/eng/> (검색일: 2021년 4월 3일).

대아프리카 무역은 2002~2014년의 기간 중 수출은 3.5배, 수입은 9.1배 증가하였다. 반면에 미국이 셰일 가스의 생산량 확대를 통해 아프리카로부터의 원유수입을 크게 줄였고, 이와 함께 같은 시점부터 시작된 저유가 현상은 미국의 대아프리카 수입이 급감하는 원인이 되었다. 이로 인해 미국의 대아프리카 무역은 2019년에도 2005년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이로 인해 2008년을 기점으로 중국의 대아프리카 무역은 미국의 대아프리카 무역을 상회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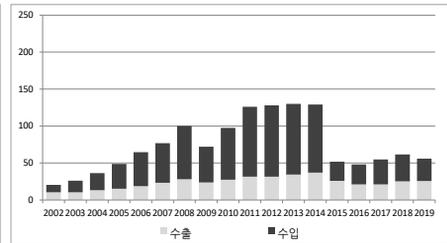
<그림 1> 중국의 대아프리카 무역

(단위: 10억 달러)



<그림 2> 미국의 대아프리카 무역

(단위: 10억 달러)



출처: UN Comtrade<sup>3)</sup>; China Africa Research Initiative.<sup>4)</sup> 출처: UN Comtrade<sup>5)</sup>; China Africa Research Initiative.<sup>6)</sup>

중국의 대아프리카 무역을 국가 단위에서 살펴보면 중요한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그림 3> 참조). 제조업 제품이 주를 이루는 수출의 경우 GDP와 인구규모가 큰 국가들을 대상으로 수출이 많다. 가령 데이터 취합이 가능한 54개의 아프리카 국가 중 나이지리아, 남아공, 이집트 3개국은 2019년 중국의 대아프리카 수출의 40%를 차지하는 반면, 하위 30개국 차지하는 비중은 8.2%에 불과하다. 수입의 경우 더 큰 편중 현상을 보이는데, 이는 중국의 대아프리카 수입이 전적으로 원유를 포함한 지하자원에 집중되어 있으며, 중국기업이 채굴권을 확보한 국가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가령 중국의 대아프리카 수입 중 앙골라 1개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30%에 이르

3) UN Comtrade, <https://comtrade.un.org/> (검색일: 2021년 4월 3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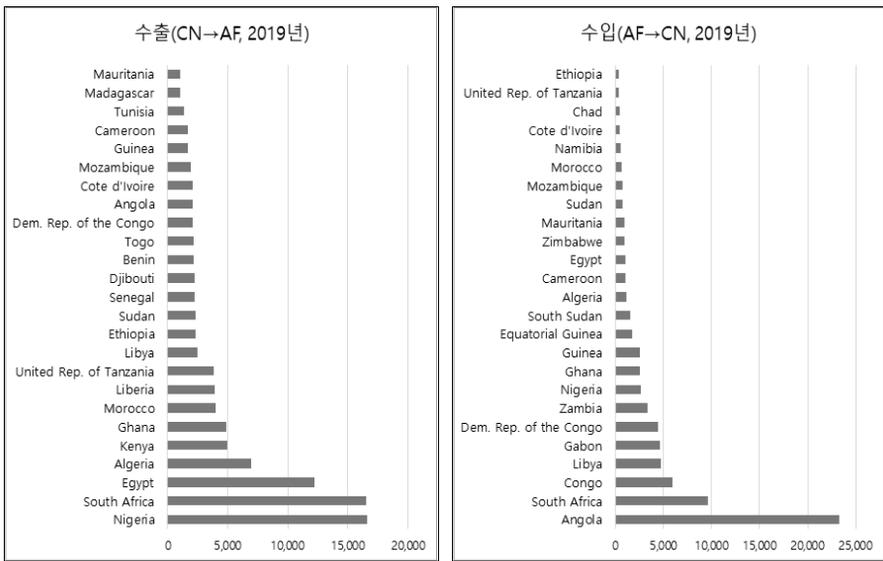
4) China Africa Research Initiative, <http://www.sais-cari.org/> (검색일: 2021년 4월 3일).

5) UN Comtrade, <https://comtrade.un.org/> (검색일: 2021년 4월 3일).

6) China Africa Research Initiative, <http://www.sais-cari.org/> (검색일: 2021년 4월 3일).

며, 앙골라, 남아공, 콩고, 리비아 4개국의 비중은 55%에 달한다. 사실 이러한 패턴의 무역은 아프리카 국가들이 선진국을 대상으로 갖고 있는 보편적인 무역구조이지만, 중국의 경우, 특정 아프리카 국가에 대한 편중현상이 강하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후술하겠지만, 특정 국가에 대한 강한 무역편중(특히 수입)은 중국의 해당 국가에 대한 투자에서 비롯되는 바가 크며, 중국의 대아프리카 투자가 자원추구형이었음을 보여주는 직관적인 지표이다.

<그림 3> 중국의 대아프리카 무역(국가별)



출처: UN Comtrade<sup>7)</sup>; China Africa Research Initiative.<sup>8)</sup>

중국의 대아프리카 투자는 2000년 해외시장 개척과 천연자원 확보를 목적으로 대외진출전략(走出去, going out)이 추진되면서 급증하였다. 특히 대아프리카 투자는 자원확보에 목적을 둔 만큼, 산업생산의 안정적인 확대와 직결되는 바, 중국의 대유럽 투자에 비해 더 일찍 시작되었다.<sup>9)</sup> 한편,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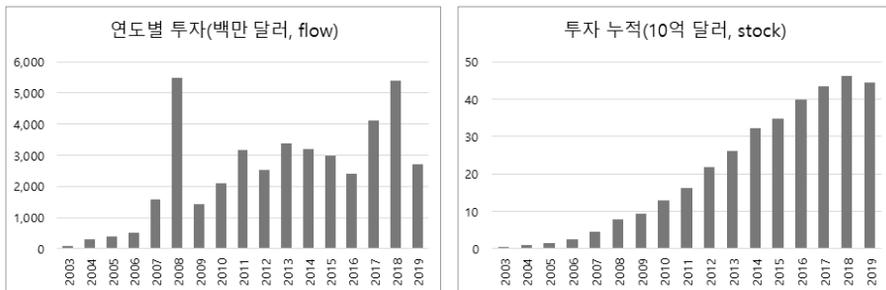
7) UN Comtrade, <https://comtrade.un.org/> (검색일: 2021년 4월 3일).

8) China Africa Research Initiative, <http://www.sais-cari.org/> (검색일: 2021년 4월 3일).

9) Ivar Kolstad and Arne Wiig, "What determines Chinese outward FDI?" *Journal of World Business*, Vol. 47 (2012), pp. 26-34; Ramasamy, Bala, Matthew Yeung, and Sylvie Laforet, "China's outward foreign direct investment: Location choice and firm ownership," *Journal of World Business*, Vol. 47, No. 1 (2012), p. 17.

국의 정치적, 경제적 안정성에 대한 판단은 중국의 대아프리카 투자에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았다.<sup>10)</sup> <그림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중국의 대아프리카 투자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인 2008년에 크게 증가하였고, 이후 감소하였다가 증가세가 다소 정체된 상황이 수년간 지속되었다. 반면에 중국의 해외 투자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선진국(특히 유럽) 투자를 중심으로 급증하는 현상을 보이는데, 따라서 중국의 대아프리카 투자 감소는 해외 투자의 목표가 ‘자원 확보’에서 ‘기술 확보’로 옮겨가고 있는 모습을 반영한 것이다. 한편 누적 투자액을 대상국 중심으로 살펴보면, 남아공, 콩고민주공화국, 앙골라, 잠비아 같은 자원부국에 집중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 5). 이와 같은 누적 투자를 <그림 3>에 나타난 중국의 대아프리카 수입과 비교해 보면, 주요 투자 대상국과 수입 대상국이 겹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중국의 대아프리카 투자가 자원확보를 목적으로 한 것임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주는 것이며, 투자를 통해 무역이 창출되는 것이다. 반면에 해외투자를 통해 형성되는 일반적인 ‘투자-무역’의 관계가 생산네트워크의 수직적 통합(vertical integration) 또는 기업 내 무역(intra-firm trade)을 통해 형성되는데 반해, 중국-아프리카 간에 형성된 투자-무역 관계는 자원 확보를 동기로 형성되었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그림 4> 중국의 대아프리카 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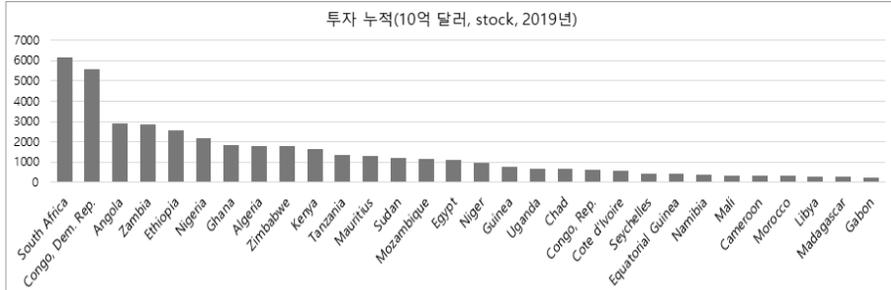


출처: China Africa Research Initiative.<sup>11)</sup>

10) Xiaomei Tan, "China's overseas investment in the energy and resources sector: Its scale, drivers, challenges and implications," *Energy Economics*, Vol. 36 (2013), p. 750; Francisco Urduinez, Gilmar Masiero and Mario Ogasavara, "China's quest for energy through FDI: New empirical evidence," *Journal of Chinese Economic and Business Studies*, Vol. 12 (2014), p. 293.

<그림 5> 중국의 대아프리카 국가 투자

(단위: 10억 달러)



출처: China Africa Research Initiative.<sup>12)</sup>

한편 중국은 아프리카 국가들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차관을 늘려왔다. 2018년 기준 누적 차관은 1,480억 달러에 달하며, 이는 주로 인프라 확충을 위한 프로젝트 차관의 형태로 제공되었다. 중국의 대아프리카 차관을 나타낸 <표 2>를 보면 운송 분야에 442억 달러가 제공되었고, 그 뒤를 전력생산(370억 달러), 광산개발(186억 달러), 통신(93억 달러), 상하수도(65억 달러) 등이 잇고 있다. 반면에 제조업 부문에 제공된 차관은 37억 달러로 전체 차관의 2.5%에 불과하며, 교육, 보건, 환경 등에 제공된 차관의 비중은 더욱 미미하다.

<표 2> 중국의 대아프리카 차관 2002~2018년

(단위: 10억 달러)

연번	분야	10억 달러	연번	분야	10억 달러
1	운송	442	11	농업	20
2	전력	370	12	재정	20
3	광산	186	13	사업	19
4	통신	93	14	은행	14
5	상하수도	65	15	교육	12
6	기타 사회	55	16	보건	9.66
7	정부	52	17	기타 원자재	3.58
8	미등록	51	18	무역	1.95
9	제조업	37	19	식품	0.46
10	다양한 산업	26	20	환경	0.38

출처: China Africa Research Initiative.<sup>13)</sup>

주: 2002~2018년의 기간 중 중국이 제공한 차관이며, 상환 등으로 인해 실제 잔액은 이 수치보다 작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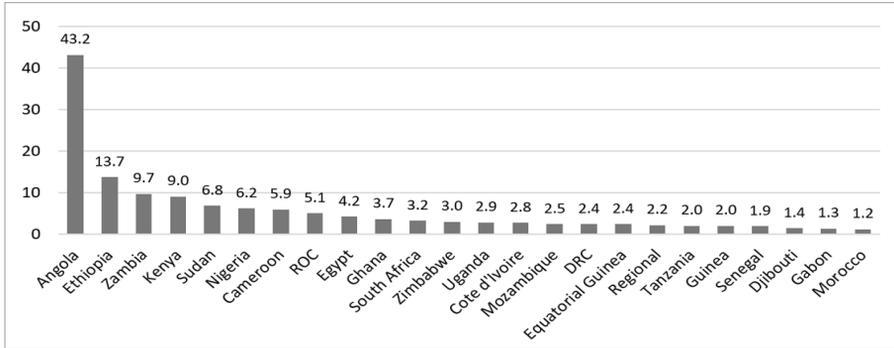
11) China Africa Research Initiative, <http://www.sais-cari.org/> (검색일: 2021년 4월 3일).

12) China Africa Research Initiative, <http://www.sais-cari.org/> (검색일: 2021년 4월 3일).

13) China Africa Research Initiative, <http://www.sais-cari.org/> (검색일: 2021년 4월 3일).

<그림 6> 중국의 대아프리카 국가 차관

(단위: 10억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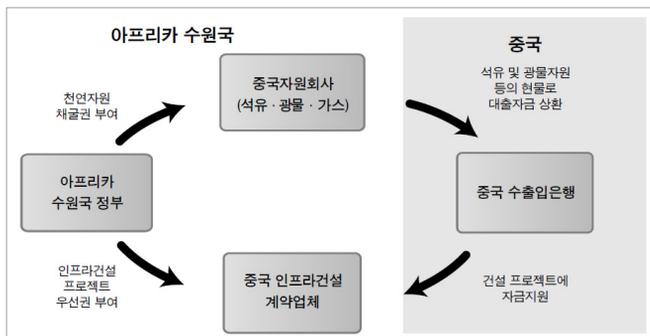


출처: China Africa Research Initiative.<sup>14)</sup>

주: 2002~2018년의 기간 중 중국이 제공한 차관이며, 상환 등으로 인해 실제 잔액은 이 수치보다 작음.

국가별로 살펴보면 <그림 6>에 나타난 바와 같이 앙골라, 에디오피아, 잠비아 등 일부 국가에 대한 편중 현상이 매우 강한데, 앞서 살펴본 중국의 대아프리카 투자 및 수입과 높은 상관관계를 갖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앙골라의 경우, ‘앙골라 방식(Angola mode)’로 지칭될 만큼 그 액수가 큰데, 이는 <그림 7>에 나타난 도식화된 바와 같이 중국의 인프라건설 업체들이 중국 수출입은행의 앙골라 정부에 대한 차관을 전제로 대규모 인프라건설 프로젝트를 수주하는 방식을 선택했기 때문이다.<sup>15)</sup>

<그림 7> 중국의 앙골라 거래 방식(Angola mod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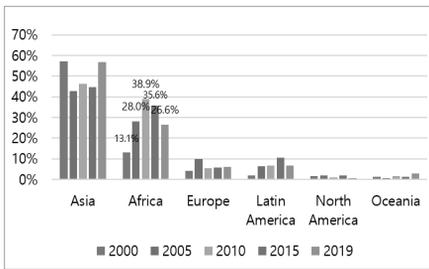
출처: Foster, Butterfield and Chen(2009); 박영호 외(2011)

14) China Africa Research Initiative, <http://www.sais-cari.org/> (검색일: 2021년 4월 3일).

15) 박영호·전혜린·김성남·김민희, “세계 주요국의 아프리카 진출 전략 및 시사점,” 『KIEP 연구보고서』 11-23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1), p. 2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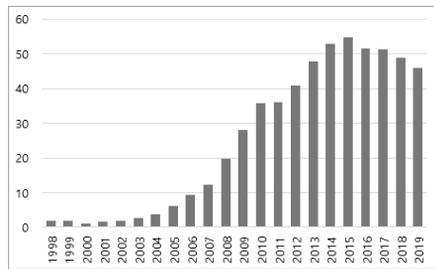
대규모의 투자를 바탕으로 지하자원을 확보했다면, 중국기업들은 중국 정부의 차관을 바탕으로 아프리카의 인프라 건설에 있어 가장 높은 시장점유율을 확보했고, 아프리카는 중국의 해외진출 인프라 업체들에게 가장 중요한 시장으로 부상했다. <그림 8>은 중국기업의 지역별 해외수입을 연도별로 정리하였다. 아프리카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13.1%였는데, 2010년에는 그 비중이 38.9%를 차지하며, 아시아 시장과 거의 같은 비중으로 성장하였다. 아프리카 시장에서 중국기업의 활동은 유럽과 중남미에서의 활동과 비교할 경우, 그 확장세를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아프리카 진출 중국기업의 건설 분야 수입은 2015년까지 큰 폭으로 증가했다(<그림 9> 참조). 2000년 중국기업의 수입은 10억 달러 수준이었으나, 2015년에는 547억 달러까지 증가했다.

<그림 8> 중국 건설기업의 지역별 해외수입



출처: China Africa Research Initiative. 16)

<그림 9> 아프리카 진출 중국기업의 건설분야 수입(10억 달러)



출처: China Africa Research Initiative. 17)

### 3. 중국의 대(對)아프리카 경제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

선행연구에서 논의되는 중국과 아프리카의 경제 관계에 대해서는 대립되는 두 입장이 존재한다. 첫 번째는 중국과 아프리카는 상호협력관계에 있다는 입장이다. 경제가 발전하며 중국은 새로운 자원을 찾을 필요가 있었고 아프리카의 대중국 원자재 수출이 증가하면서 아프리카와 중국의 경제교류가

16) China Africa Research Initiative, <http://www.sais-cari.org/> (검색일: 2021년 4월 3일).

17) China Africa Research Initiative, <http://www.sais-cari.org/> (검색일: 2021년 4월 3일).

증가해왔다. 서방 국가와 대립관계에 있었던 중국의 입장에서는 서방국가의 영향력이 크지 않는 아프리카와 교역을 하는 것이 외교적인 이점이 있었고, 아프리카는 중국과 경제적 교류를 확대함으로써 경제발전의 기회로 삼을 수 있었으므로 중국과 아프리카는 상호협력하는 관계에 있다는 입장이다.

두 번째는 중국과 아프리카의 관계가 비대칭적이기 때문에 착취의 관계로 발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아프리카의 대중국 원자재 수출이 늘어나면서 아프리카에서는 원자재 산업에 집중되는 산업구조 개편이 이루어지고, 이는 원자재 산업을 제외한 산업의 경쟁력의 하락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는 아프리카의 대중국 의존도가 더욱 높아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중국에서 받는 투자가 점차 늘어나며 국가의 주요 인프라가 중국 자본에 종속되어 과거 서방국가의 착취와 유사한 관계로 발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한다.<sup>18)</sup>

툴(Tull)의 분석에 의하면 중국은 서방국가의 원조와는 다르게 조건 없는 원조를 약속했고 이렇게 형성된 우호적인 관계 속에서 중국과 아프리카의 교역이 증가했다고 분석했다.<sup>19)</sup> 중국은 아프리카로부터 석유를 안정적으로 공급 받을 수 있었고, 아프리카는 원자재 수출을 통해 경제발전을 꾀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중국과 아프리카의 관계는 이전 서방국가와 아프리카의 비대칭관계와 근본적으로는 다르지 않으며 아프리카의 장기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경제적으로 이득이 아닐 수도 있다고 동 연구는 분석했다. 중국의 아프리카 독재국가에 대한 지원은 결과적으로 아프리카 인권에 대한 침해를 야기하므로 결국에는 사회적으로 발전할 기회를 박탈당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이득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다. 또한 중국과 서방국가의 대립구도가 약해지고 갈등이 완화되면 중국은 아프리카를 더 이상 중요한 협력국가로 생각하지 않을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분석했다.

자파(Zafar)은 아프리카와 중국의 경제적 관계에서의 이중성에 대해서 연구했다.<sup>20)</sup> 첫째, 아프리카의 중국과의 경제적 관계의 이점은 다음과 같다.

18) 2000년과 2011년 사이 중국의 은행은 534억 달러를 43개의 아프리카 국가에 인프라를 건설하는 용도로 대출해줬다. Chris Alden and Lu Jiang, "Brave new world: debt, industrialization and security in China-Africa relations," *International Affairs*, Vol. 95, No. 3 (2019), p. 642.

19) Dennis M. Tull, "China's engagement in Africa: scope, significance and consequences," *Journal of Modern African Studies*, Vol. 44, No. 3 (2006), p. 459.

중국의 경제발전으로 중국은 새로운 자원을 찾을 필요가 있었고 아프리카에서 자원을 수입하기 시작했는데, 중국의 자원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증가했으므로 아프리카의 자원 가격을 상승시켰고 아프리카에게 경제발전의 기회를 제공했다. 또한 아프리카의 대중국 자원수출이 증가하면서 아프리카와 중국의 경제교류가 증가하고 그 결과 중국의 대아프리카 지원과 투자가 증가하고, 저렴한 중국산(産) 재화에 쉽게 접근이 가능했다. 또한 중국은 서방국가에 비해 정치적 간섭을 최소화하는 정책을 취했기 때문에 아프리카로서는 중국과의 관계에 이점이 많다고 분석하였다. 동 연구에서는 동시에 경제적 위협에 대해서도 기술하고 있다. 중국의 인프라투자는 원자재 산업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원자재 산업 이외의 산업에 악영향을 주고 장기적으로 경제 발전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또한 간섭을 최소화하는 중국의 정책은 부패를 방지하고 투명성을 높이는 여러 장치를 요구하지 않으므로 부패를 방지하고 투명성을 높이려는 자체적 노력을 저해할 수 있다고 보았다.

모간(Morgan)은 중국과 아프리카의 관계를 최근의 경제적 필요에 의한 관계로 규정하기 보다는 60년 전부터 축적되어 온 이데올로기 및 지정학적 맥락에서 접근하고 이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을 했다.<sup>21)</sup> 중국과 아프리카 국가들은 냉전시대 때부터 관계를 맺어왔으며 중국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아프리카에 지원을 해왔다. 중국은 자신이 매우 가난했을 때도 중국과 비슷한 이념을 갖는 국가에 지원을 해왔다. 이런 중국의 지원은 냉전시대에 미국과 소련과의 지정학적 경쟁구도에서 중국의 우방국을 만들려는 노력의 일환이었다. 현재 중국과 아프리카의 경제적 관계는 과거의 이런 관계에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것이다.

중국과 아프리카의 경제관계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과 부정적인 입장이 대립되고 있으나, 기존 연구에서는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sup>22)</sup> 긍정적 입

20) Ali, Zafar, "The Growing Relationship Between China and Sub-Saharan Africa: Macroeconomic, Trade, Investment, and Aid Links," *The World Bank Research Observer*, Vol. 22, No. 1 (2007), p. 103.

21) Pippa Morgan, "Ideology and Relationality: Chinese Aid in Africa Revisited," *Asian Perspective*, Vol. 42, No. 2 (2019), p. 207.

22) Simplicie A. Assongu and Gilbert A. A. Aminkeng, "The economic consequences of China-Africa relations: debunking myths in the debate," *Journal of Chinese Economic and Business Studies*, Vol. 11, No. 4 (2013), p. 261.

장을 강조하는 연구들에서는 중국과 아프리카의 경제 관계에서 긍정적인 경제적 효과를 제시하고 있으며,<sup>23)</sup> 부정적인 입장을 강조하는 연구는 중국으로 인한 아프리카 산업발전 둔화 사례를 주요 근거로 제시한다.<sup>24)</sup> 그러나 중국의 경제원조로 인한 아프리카의 제도적 발전의 저해를 강조하거나 중국의 착취적 성격을 강조하는 연구에서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실증적인 근거는 통계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이런 기존 연구의 연장선상에서 중국에 대한 아프리카인의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는 본 연구는 의미가 있다. 우선 중국에 대한 인식에 대한 직접적인 데이터를 통해 중국과 경제관계에 따른 아프리카인의 인식의 차이를 파악할 수 있다. 중국과의 관계가 아프리카인에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는지 여부를 실증적으로 파악해 긍정적인 입장과 부정적인 입장 중 어느 입장이 우세한지 파악을 할 수 있다. 또한 아프리카인에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질 중국과 경제관계에서의 요인과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요인을 분석함으로써 중국의 대아프리카 관계에서 아프리카인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요인과 반대에 부딪힐 수 있는 요인을 파악해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본 연구가 아프리카인의 대 중국 인식에 관한 첫 연구는 아니다. 국내 연구로는 케냐인의 대중국 인식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존재하며,<sup>25)</sup> 해외 연구로는 개별 아프리카인의 중국에 대한 인식을 분석한 연구가 있다.<sup>26)</sup> 기존 국내 연구에서는 아프리카의 한 국가의 국민을 대상으로 중국에 대한 인식을 소개하고 그 의미를 해석했고, 기존 해외 연구에서는 20개 아프리카 국가에서 수집한 설문 데이터를 기반으로 대중국 인식의 결정요인을 분석했다. 본

23) Diadié Diaw and Albert Lessoua, "Natural Resources Exports, Diversification and Economic Growth of CEMAC countries: On the Impact of Trade with China," *African Development Review*, Vol. 25, No. 2 (2013), p. 189; Renard, Mary-Françoise. "China's trade and FDI in Africa," *African Development Bank Working Paper*, No. 126 (2011), p. 6.

24) Ernest Tooichi Aniche and Kenneth Kalu, "China-Africa economic relation: a double-edged sword for Africa," *African Journal of Economic and Sustainable Development*, Vol. 7, No. 4 (2020), p. 374.

25) 조원빈, "중국의 대 케냐 FDI와 케냐인들의 인식," 『한국동북아논총』 Vol 25, No. 4 (한국동북아학회, 2020).

26) Marek Hanusch, "African Perspectives on China-Africa: Modelling Popular Perceptions and their Economic and Political Determinants," *Oxford Development Studies*, Vol. 40, No. 4 (2012), p. 492.

연구는 기존 연구에서 사용했던 Afrobarometer Round 4의 데이터에서 확장 업데이트된 Round 6 데이터를 활용했으며 36개국의 데이터를 분석해 대중국 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제적 요인을 분석하고, 국가 단위의 거시적 분석을 추가했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성이 있다.

### Ⅲ. 실증분석(1): 거시 데이터 분석

이 연구에는 중국에 대한 아프리카인들의 이미지(긍정적/부정적)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을 분석한다. 중국에 대한 이미지는 국가 단위에서는 개별 아프리카 국가와 중국 간의 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개인적 차원에서는 개인의 특성, 정치 및 경제적 문제에 관한 인식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2016년에 발표된 Afrobarometer Round 6 데이터를 사용하여 분석을 하였다. Round 6 데이터는 총 36개국의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으며, 약 4만 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로 구성되어 있다. 각 국가 당 평균 1,000여 명 정도의 설문 응답자를 포함하고 있다. 인구가 제일 많은 나이지리아가 1,968명의 응답자를 포함하며, 이집트가 835명으로 응답자 수가 제일 적다. Round 6 데이터는 중국에 대한 이미지, 중국의 영향력, 중국 원조의 효과 등 중국과 관련된 5개의 질문을 포함한다. 이 연구에서는 국가 단위(거시적 차원)와 개인 단위(미시적 차원)에서 중국에 대한 이미지를 종속변수로 하여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 1. 가설 및 모델

중국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가 단위의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 가설 1: 수출, 수입 등 무역의 증가는 중국에 대한 이미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가설 2: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는 중국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가설 3: 제도적 발전 수준은 중국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첫째, 무역의 증가는 경제성장과 더불어 대외개방도가 증가하는 형태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경제성장과 고용 확대의 동인으로써 무역의 중요성이 부각될 경우, 해당 국가의 시민들은 주요국과의 무역확대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일 가능성이 높으며, 세계적인 무역 팽창의 한 축을 담당할 중국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시민들의 모든 인식의 합은 국가 단위에서 중국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으로 나타날 수 있다. 둘째, 중국에 대한 무역, 투자 의존도가 높을 경우 중국에 대해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될 가능성이 높다. 중국에 대한 의존도는 대중국 무역 비중, 중국 FDI의 유입 및 차관도입, 중국기업의 대아프리카 인프라 프로젝트 이익 등으로 평가해 볼 수 있다. 자국의 경제발전에 대중국 무역과 투자유입이 미치는 영향이 크다면, 중국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가질 가능성이 크다. 셋째, 중국의 해외투자자와 차관제공은 대상국의 거버넌스 수준과 큰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렵는데, 이는 중국이 대아프리카 경제외교에 있어 내정불간섭을 원칙으로 표방해 왔기 때문이다<sup>27)</sup>. 만약 해당 국가의 제도적 발전 수준이 중국에 대한 긍정적/부정적 이미지와 어떠한 방식으로든 강한 상관관계를 보인다면, 이는 중국에 대한 아프리카인들의 인식이 자국의 거버넌스 수준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가설을 바탕으로 거시 데이터를 통한 실증분석에서는 국가 단위에서 나타난 중국에 대해 긍정적 이미지를 갖고 있는 국가별 응답자 비중을 종속변수로 선택한 후 (1) 무역, (2) 대중국 관계, (3) 제도적 수준을 나타내는 설명변수를 선정하여 실증분석을 위한 방정식을 구성하였다.

#### 방정식 (1)

$$Image\ of\ China_i = c_1 +$$

$$c_2 \sum_{k=1}^l trade_i + c_3 \sum_{k=1}^m Relation\ with\ China_i + c_4 \sum_{k=1}^n Institutions_{i_5} + \mu_i$$

27) Peter J. Buckley, L. Jeremy Clegg, Adam R. Cross, Xin Liu, Hinrich Voss, and Ping Zheng, "The determinants of Chinese outward foreign direct investment," *International Journal of Business Studies*, Vol. 38 (2007), p. 499; Tan (2013), p. 750; Urdinez et al. (2013), p. 293.

첫째, 무역 변수로는 2005~2015년의 기간 중 수출, 수입, 총무역의 증가율을 선택하였다. 둘째, 대중국 관계에서는 무역, FDI, 차관, 중국건설 기업의 수입(revenue) 등을 선정하였고, 추가적으로 현장에 투입된 중국인 건설 근로자의 수 또한 설명변수로 사용하였다. 셋째, 제도적 수준을 나타내는 설명변수로는 세계은행(World Bank)에서 추정한 거버넌스 지표(World Governance Indicator)를 사용하였다. 아프리카 국가들의 특징을 반영하여 정치적 안정성, 정부의 효율성, 법치주의, 부패 통제에 관한 변수를 선택하였고, -2.5~+2.5로 변화하는 지표의 특성을 감안하여, 수식을 통해 모든 지표를 양수로 변환하였다.<sup>28)</sup> <표 3>은 분석에 사용된 종속변수와 설명변수를 요약하였다. 변수의 기술통계량은 부록에 수록하였다.

<표 3> 거시 데이터(국가 단위) 분석을 위한 변수

분류	변수	변수 명	출처
종속변수	중국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	<i>Image<sub>i</sub></i>	0~1
			Mean: 0.74, Min: 0.39, Max: 0.93
			Afrobarometer <sup>29)</sup>
설명변수			
무역관련 변수	2005~2015년 수출증가율	<i>Export<sub>i</sub></i>	IMF Direction of Trade Statistics <sup>30)</sup>
	2005~2015년 수입증가율	<i>Import<sub>i</sub></i>	
	2005~2015년 무역증가율	<i>Trade<sub>i</sub></i>	
대중국 관계	2015년 중국의 무역 비중	<i>China_trade<sub>i</sub></i>	China Africa Research Initiative
	2010~2015년 중국 FDI 유입	<i>China_FDI<sub>i</sub></i>	
	2010~2015년 중국 차관도입	<i>China_loan<sub>i</sub></i>	Brautigam et al. (2019) <sup>31)</sup>
	2010~2015년 중국 건설기업의 수입	<i>China_revenue<sub>i</sub></i>	Johns Hopkins University SAIS China-Africa Research Initiative
	2010~2015년 중국 건설근로자 수	<i>Chinese_workers<sub>i</sub></i>	

28) 해당 지표를 양수로 변환시키기 위해 다음의 수식을 사용하였다. 그 결과 거버넌스 지표는 0부터 시작하는 양수로 변환되었다.  $v_{transformed} = \{1 + (v_{original}/2.5)\} / \{1 - (v_{original}/2.5)\}$ .

29) Afrobarometer Merged Data, <https://afrobarometer.org/data/merged-data> (검색일: 2021년 4월 9일).

분류	변수	변수 명	출처
제도적 발전 수준	정치적 안정성	<i>Stability<sub>i</sub></i>	World Bank Governance Indicators <sup>32)</sup>
	정부의 효율성	<i>Effectiveness<sub>i</sub></i>	
	법치 수준	<i>Law<sub>i</sub></i>	
	부패의 통제	<i>Corruption<sub>i</sub></i>	

주: 모든 데이터는 로그 값으로 변환한 후에 실증분석을 실시함.

## 2. 분석결과

〈표 4〉는 거시데이터를 사용한 최소자승법(OLS: Ordinary Least Squares) 분석 결과를 요약하였다. 연구 목적과 설명변수 간의 다중공선성 (multicollinearity) 문제를 고려하여 설명변수의 구성을 달리하여 Model (1)~(8)로 구분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우선 대외무역의 증가는 중국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 및 수입, 무역 증가율은 중국에 대한 인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대중국 무역비중도 중국에 대한 긍정적/부정적 인식과 특별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지 않았다. 또한 중국으로부터의 FDI 유입도 중국에 대한 인식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FDI 유입량을 인구 및 GDP를 활용하여 조정하였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결과를 보였다. 반면에 중국으로부터의 차관 도입은 중국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에 양(+)의 방향으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차관의 무조건성, 저금리를 감안할 경우, 중국의 차관 제공은 적어도 국가 단위에서 나타는 중국에 대한 좋은 인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중국 건설노동자의 유입도 중국에 대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 IMF Direction of Trade Statistics, <https://data.imf.org/> (검색일: 2021년 4월 9일).

31) Deborah, Brautigam, Jyhjong Hwang, Jordan Link, and Kevin Acker, "Chinese Loans to Africa Database," Washington, DC: China Africa Research Initiative, Johns Hopkins University School of Advanced International Studies (2019) <http://www.sais-cari.org/research-chinese-loans-to-africa>

32) World Bank Governance Indicators, <https://info.worldbank.org/governance/wgi/> (검색일: 2021년 4월 9일).

&lt;표 4&gt; 거시 데이터(국가 단위)를 통한 실증분석 결과(OLS)

	(1)	(2)	(3)	(4)	(5)	(6)	(7)	(8)
<i>Export Growth</i>	0.05	-0.033						
	(0.042)	(0.045)						
<i>Import Growth</i>	0.19	0.28						
	(0.136)	(0.175)						
<i>Trade Growth</i>			0.069					
			(0.096)					
<i>China's share</i>	-0.029	(0.002)	-0.031					
	(0.026)	(0.026)	(0.022)					
<i>FDI fom China</i>		0.067		0.004	0.014	0.003	-0.007	-0.019
		(0.053)		(0.043)	(0.039)	(0.041)	(0.040)	(0.041)
<i>Loan from China</i>		0.115**		0.082*	0.114**	0.091**	0.089**	0.091**
		(0.049)		(0.045)	(0.042)	(0.043)	(0.041)	(0.042)
<i>China's revenue</i>		-0.347**		-0.261**	-0.401***	-0.303***	-0.314***	-0.303***
		(0.122)		(0.102)	(0.106)	(0.100)	(0.096)	(0.096)
<i>Chinese workers</i>		0.206*		0.160*	0.223**	0.206**	0.233**	0.212**
		(0.112)		(0.092)	(0.085)	(0.091)	(0.090)	(0.088)
<i>Political stability</i>					-0.145**			
					(0.056)			
<i>Effectiveness</i>						-0.171*		
						(0.097)		
<i>Rule of law</i>							-0.231**	
							(0.102)	
<i>Control of corruption</i>								-0.230**
								(0.107)
<i>Constant</i>	-0.202	-1.036	-0.287	-0.316	-0.257	-0.535	-0.498	-0.21
	(0.231)	(0.673)	(0.177)	(0.576)	(0.513)	(0.563)	(0.533)	(0.535)
Observations	25	20	33	26	26	26	26	26
R-squared	0.196	0.521	0.073	0.247	0.434	0.349	0.4	0.388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 p&lt;0.01, \*\* p&lt;0.05, \* p&lt;0.1)

주목할 점은 제도적 수준이 낮을수록 중국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갖는 경향이 뚜렷하다는 점이다. 설명변수로 사용한 4개의 제도 변수는 OLS 분석 결과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아프리카 국가 중 제도적 수준이 낮은 국가일수록 중국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하며, 중국의 차관제공과 경제협력이 적어도 양호한 거버넌스를 기준으로 대상국을 선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해 준다. 차관 변수와 제도변수를 조합할 경우, 거버넌스가 낮은 국가일수록 중국의 차관이 더 제공되는 특징이 있으며, 중국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결론을 지을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아프리카 국가들이 중국을 새로운 유형의 정치, 경제거버넌스를 보여주는 대안적 모델로 간주하는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실증분석은 패널 데이터가 아닌, 횡단면 데이터라는 점에서 한계를 갖는다. 지금까지 Afrobarometer는 7회에 걸친 설문조사(Round 1~7)를 실시하였으나, 중국에 대한 이미지를 묻는 설문조사는 2016년에 발표된 Round 6에서만 실시하였다. 또한 일부 아프리카 국가들의 경우 데이터 미비로 인해 실제 OLS 분석에서 국가 수가 20~26개로 축소되었는데, 이러한 점은 데이터의 가용성에 따른 분석의 한계이다.

## IV. 실증분석(2): 미시 데이터 분석

### 1. 가설 및 모델

미시 데이터를 활용한 분석은 관측 수가 거시 데이터에 비해서는 훨씬 많다. 또한 개인의 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성을 설명변수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거시 데이터 분석과 보완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개인 차원에서 중국에 대한 인식(긍정적/부정적 이미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지를 파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개인의 특성(연령, 성별, 교육수준 등)은 중국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가설 2: 자국의 정치적 안정에 대한 평가는 중국에 대한 이미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가설 3: 자국의 경제적 필요에 대한 인식은 중국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친다.

가설 4: 개인의 직업에 따라 중국에 대한 이미지가 다를 수 있다.

상술한 가설을 설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령, 성별, 교육수준 등 개인의 고유한 특성은 중국에 대한 이미지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가령 연령의 경우 동일 연령대(cohort)가 역사적 경험을 공유한다는 점에서 해외 국가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교육수준의 경우 개인의 인지와 능력과 특정 대상에 대한 이해 형성과 밀접한 상관관계를 갖는다. 둘째, 개인의 정치적 안정에 대한 평가는 중국을 바라보는 관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정치 체제는 일반적인 서구의 민주주의 체제와 다르며, 발전 경로 또한 다르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국의 정치적 상황에 대한 평가가 그대로 중국에 대한 인식에 투영될 경우, 이 평가에 따라 중국을 긍정적 또는 부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다. 셋째, 중국의 아프리카 진출은 아프리카 국가 입장에서는 외자유치, 수출증대, 인프라 건설의 효과를 가져왔다. 따라서 자국 내에 인프라 건설이 시급하다고 판단할 경우 중국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갖게 될 가능성이 높다. 반면에 자국의 우선순위 정책이 채굴산업에서 벗어나, 산업의 다각화에 초점을 둘 경우, 중국과의 협력 강화의 필요성이 낮을 것으로 생각되며 이 경우 중국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갖게 될 추동요인이 적게 된다. 넷째, 개인의 직업은 농업/제조업/서비스업, 또는 민간/정부, 숙련/비숙련 등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 중국과의 협력강화와 대중국 무역/투자의 확대 형태로 나타났을 경우, 직업별로 받게 되는 영향이 다를 수 있으며, 이 경우 중국에 대한 인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가설을 바탕으로 미시 데이터를 통한 실증분석에서는 중국에 대한 이미지에 대한 답변(1~5)을 종속변수로 한 후, (1) 개인적 특성, (2) 경제적 인식, (3) 정치적 인식, (4) 직업, (5) 중국의 영향력에 대한 인식을 설명변수로 선정하여 실증분석을 위한 방정식을 구성하였다.

방정식 (2)

$$Image\ of\ China_{ic} = c_1 + c_2 \sum_{k=1}^l status_{ic} + c_3 \sum_{k=1}^m Economy + c_4 \sum_{k=1}^n Political_{ic} + c_5 \sum_{k=1}^o Influence_{cNi} + \mu_i$$

〈표 5〉에 요약된 설명변수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의 특성으로는 연령, 성별, 교육수준을 사용하였다. 성별의 경우 더미 변수를 사용한 반면, 연령과 교육의 경우 순차형 범주값을 사용하였다. 둘째, 경제적 인식에 있어서는 국가와 개인의 경제적 상황에 대한 평가를 변수로 사용하였다. 가령 ‘경제적 상황: 국가’에서 5의 값은 응답자가 자국의 경제적 상황을 매우 낙관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국가적 이슈’에 있어서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이슈를 선정하는 객관식 문항에 대해 각각 ‘경제’와 ‘인프라’를 선정한 응답자들, ‘투자 우선순위’에 대한 문항에서는 공공시설(public utility)을 선택한 응답자를 더미 변수화 하였다. 셋째, 정치적 인식에 있어서는 자국의 민주주의에 대한 만족도와 치안에 대한 평가를 변수로 사용하였다.

<표 5> 미시 데이터(개인 단위) 분석을 위한 변수

분류	변수	변수 명	설명
종속변수	중국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	<i>Image<sub>ic</sub></i>	1~5
설명변수			
개인의 특성	연령	<i>Age<sub>ic</sub></i>	1~6
	성별	<i>Gender<sub>ic</sub></i>	<i>male=1, female=0</i>
	교육	<i>Education<sub>ic</sub></i>	1~4
경제적 인식	경제적 상황: 국가	<i>National_economy<sub>ic</sub></i>	1~5
	경제적 상황: 개인	<i>Personal_living<sub>ic</sub></i>	
	국가적 이슈: 경제	<i>Economy<sub>ic</sub></i>	
	국가적 이슈: 인프라	<i>Infrastructure<sub>ic</sub></i>	
	투자 우선순위: 공공시설	<i>Public_utility<sub>ic</sub></i>	
정치적 인식	민주주의 만족도	<i>Democracy<sub>ic</sub></i>	1~5
	폭력으로부터의 자유	<i>Violence<sub>ic</sub></i>	1~4
중국에 대한 평가	중국의 영향력	<i>CHN_influence<sub>ic</sub></i>	Dummy variables, 1 or 0

주: Afrobarometer Round 6(2016)을 통해 발표된 데이터 셋을 사용하였음.<sup>33)</sup>

## 2. 분석결과

미시 데이터를 통한 분석에 있어, 합동(pooled) OLS 분석과 국가 고정효과(fixed effect)를 사용한 분석, 그리고 종속변수에 대한 순서형 로지스틱(ordinal logistic) 회기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6>은 합동 OLS 분석결과를 요약하였고, 고정효과 분석과 순서형 로지스틱 분석결과는 부록에 수록하였다. 첫째, 개인적 특성은 중국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에 뚜렷하게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이 낮을수록, 여성보다는 남성이, 교육 수준이 낮을수록 중국에 대해 긍정적 이미지를 갖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둘째, 경제적 인식에 있어서는 경제적 상황에 대한 평가(국가와 자신의 상황)가 긍정적일수록, 중국에 대해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상황에 대한 개인적 인식이 중국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와 직결된다고 결론지을 경우, 이 결과는 두 가지 방향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좋은 경제적 상황을 중국과의 밀접한 경제협력 덕분이라고 보게 되는 경우와, 좋은 경제적 상황으로 인해 중국에 대해 관대하게 평가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셋째, 정치적 안정성(민주주의, 치안)이 높을수록 중국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원데이터(raw data)를 살펴볼 경우, 다소 다른 해석이 가능하다. 우선 정치적 안정성에 관한 평가는 거시적 분석에서와 같이 객관적인 평가(World Bank 데이터)가 아닌, 개인의 인식이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Afrobarometer의 설문조사(Round 6)에 따르면, 부룬디(Burundi)는 자국의 민주주의에 대한 만족도가 35개국 중 1위인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에 세계은행(World Bank)의 거버넌스 지표에 따르면 35개국 중 34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니제르(Niger)의 경우에도 Afrobarometer의 설문조사에서는 35개국 중 3위로 상위를 기록하고 있으나, 세계은행(World Bank)의 조사에서는 28위를 차지하고 있다. 즉 개인의 인식에 따른 평가와 국제기구의 평가가 전혀 반대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차이는 결국 민주주의 등 정치적 안정성에 대한 개인의 인식이 타국과의 비교가 아닌, 주관적인 평가임을 의미한다.<sup>34)</sup> 넷째, 경제

33) Afrobarometer Merged Data, <https://afrobarometer.org/data/merged-data> (검색일: 2021년 4월 9일).

이슈를 중시하는 응답자의 경우에는 중국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는 경우가 있는데, 인프라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응답자의 경우 중국에 대해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정효과 분석에서는 투자 우선순위로 인프라 확충을 지적할수록 중국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강했고, 순서형 로지스틱 분석결과에서는 국가의 중요한 이슈로 인프라 문제를 지적하는 응답자일수록 중국에 대해 긍정적 이미지가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자국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이 크다고 평가하는 경우, 중국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아프리카에 대한 영향력은 점점 커져왔는데, 그러한 영향력인 중국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로 연결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일반적으로 아프리카인들의 중국에 대한 인식은 긍정적인 편이라고 볼 수 있다.

<표 6> 미시 데이터(개인 단위)를 통한 실증분석 결과(OLS)

	(1)	(2)	(3)	(4)	(5)
Age	-0.037***	-0.038***	-0.038***	-0.039***	-0.039***
	(0.005)	(0.004)	(0.004)	(0.004)	(0.004)
Gender	0.067***	0.052***	0.050***	0.061***	0.058***
	(0.012)	(0.012)	(0.012)	(0.012)	(0.012)
Education	-0.144***	-0.133***	-0.137***	-0.129***	-0.121***
	(0.007)	(0.006)	(0.006)	(0.007)	(0.007)
Economy (country)	0.069***	0.070***		0.072***	0.071***
	(0.006)	(0.006)		(0.006)	(0.006)
Economy (personal)	0.023***	0.019***		0.020***	0.019***
	(0.006)	(0.006)		(0.006)	(0.006)
Satisfaction of democracy	0.097***	0.085***		0.086***	0.085***
	(0.006)	(0.006)		(0.006)	(0.006)
Freedom perception from violence	0.018***	0.013**		0.013**	0.013**
	(0.006)	(0.005)		(0.005)	(0.005)

34) 공적기관이 발표하는 설문조사 데이터의 경우, 설문조사의 방법에 있어서 엄밀성이 요구되며, 엄밀하지 못한 설문조사가 이루어졌을 경우, 이 데이터를 활용해 이루어진 후속연구들 또한 신뢰성을 확보하지 못하게 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Afrobarometer의 데이터를 분석함에 있어 설문조사의 엄밀성에 대해서는 논외로 하였다. 현 시점에서 Afrobarometer에 견줄만한 설문조사 데이터가 없기 때문이다.

	(1)	(2)	(3)	(4)	(5)
China's influence		0.870***	0.882***	0.872***	0.869***
		(0.015)	(0.015)	(0.015)	(0.015)
National issue: economy		-0.102***	-0.106***		-0.096***
		(0.013)	(0.013)		(0.013)
National issue: Infrastructure		0.042**	0.051***		0.039**
		(0.017)	(0.017)		(0.017)
Investment priority: infrastructure		-0.002	0.000		-0.002
		(0.016)	(0.017)		(0.016)
Constant	3.597***	2.977***	3.544***	2.892***	2.920***
	(0.036)	(0.037)	(0.027)	(0.039)	(-0.04)
Observations	39914	39914	39914	39914	39914
R-squared	0.032	0.113	0.097	0.112	0.114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 p<0.01, \*\* p<0.05, \* p<0.1)

## V. 결론

이 연구는 중국-아프리카 경제관계를 분석함에 있어 2000년대 초반 이후 중국의 대아프리카 투자가 급증한 점에 주목하고, 이에 따른 아프리카 국가들의 대중국 교역과 투자 추이를 분석하였다. 특히 아프리카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는 가운데, 아프리카인들이 중국에 대해 갖고 있는 긍정적/부정적 인식을 데이터를 통해 검토하고, 중국에 대한 이미지에 미치는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먼저 거시 데이터(국가 단위)를 통한 실증분석에 앞서 중국과의 무역 및 투자유입 증가가 아프리카의 중국에 대한 이미지에 큰 변화를 준 것으로 가정하였으나, 예상과 달리 영향의 유의성 여부를 통계적으로 입증할 수 없었다. 만약 아프리카 국가들의 자본 수요(필요)를 중국기업이 FDI를 통해 채워 주었다면, 국가 단위에서 나타난 중국에 대한 인식은 긍정적일 것이다. 그러나 다양한 모델 구성을 통해 분석한 결과 설명변수들은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론을 도출하게 된 데에는 중국의 대아프리카 무역 및

투자의 특수성에 기인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한다. 반면에 중국으로부터의 차관 도입은 중국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와 달리, 중국으로부터의 차관은 대부분 공공인프라 건설에 투입되었기 때문에, 아프리카 경제에 기여를 한 것이며, 이로 인해 중국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에 기여한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반면에 중국의 대아프리카 차관은 프로젝트성 차관인 경우가 많아 그 용도가 제한적이며, 중국의 공적개발원조도 구속성 원조(tied aid)의 비중이 높다는 점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다만 이러한 조건적 차관과 원조에 대해서도 국가 단위에서 형성되는 대중국 인식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해석은 연구의 대상(국가 또는 사회집단)을 더 축소하여 엄밀한 조사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중국기업의 대아프리카 건설분야 이익 증가는 중국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연계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연구의 한계점은 분석에 필요한 거시 데이터가 1개 연도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향후, 추가적인 연도에 대한 데이터가 확보될 경우, 상술한 잠정적인 결론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시 데이터를 통한 분석결과 개인의 특성 또는 인식에 관한 다양한 변수는 중국에 대한 개인적 차원의 이미지 형성을 비교적 명확하게 설명했다. 연령, 성별, 교육수준이 갖는 효과는 비교적 명확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잠정적인 해석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가령 낮은 연령일수록 중국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한다는 점은 이미 중국이 경제적 강대국으로 부상한 후에 중국에 대한 이미지를 형성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즉 연령이 낮을수록 중국의 영향력을 새로운 변화가 아닌,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강할 수 있다. 1950년대에 출생한 고령층과 1990년대에 출생하여 아프리카 청년층이 갖는 중국에 대한 경험은 현저히 다를 것이며, 이와 같은 차이가 중국에 대한 인식 형성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개인적 차원에서는 경제적 상황을 긍정적으로 평가할수록, 정치적 상황을 긍정적으로 평가할수록 중국에 대한 인식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설명변수 자체가 개인의 인식, 느낌이 반영되는 설문 조사의 결과이므로, 변수를 해석하는데 있어 유의가 필요하다. 또한 자국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이 크다고 평가하는 경우, 중국에 대해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국의 영향력이 아프리카 국가들의 실질적인 필요를 채워주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 통계적으로 유의성을 발견한 반면, 인과성을 입증하기에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한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미시적 분석에 있어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중국에 대한 인식이 좋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국제적 상황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 풍부한 정보를 갖추게 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연구를 통한 발견은 정성적 차원에서 추가적인 사례연구를 필요로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중국에 대해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둘째, 거시 데이터를 통한 분석에서는 제도적 수준이 낮을수록, 중국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에 대해서도 보다 정교한 해석이 요구된다. 이러한 결과는 중국이 아프리카 국가들의 거버넌스 수준을 고려하지 않은 채 자국의 필요에 따라 경제관계를 구축했던 점에 기인하는 바가 아닐까? 이 질문에 답변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대아프리카 진출 전략에 있어 중국 내의 문헌검토와 대아프리카 엘리트 외교 등에 대한 연구를 통해 답변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당초 2020년에 발표가 예정된 Afrobarometer Round 8의 경우 중국에 대한 설문조사를 다시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예상과 달리 발표가 늦어지고 있으나, Round 8 데이터가 발표될 경우, 2개 연도(2016년, 2020년)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는 바, 보다 통계적으로 정확한 추가연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참고문헌]

- 박영호·전혜린·김성남·김민희. “세계 주요국의 아프리카 진출 전략 및 시사점.” 『KIEP 연구 보고서』 11-23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1).
- 조원빈. “중국의 대 케냐 FDI와 케냐인들의 인식.” 『한국동북아논총』 25권 4호 (한국동북아학회, 2020).
- Alden, Chris and Lu Jiang. “Brave new world: debt, industrialization and security in China-Africa relations.” *International Affairs*, Vol. 95, No. 3 (2019).
- Aniche, Ernest Toochoi and Kenneth Kalu. “China-Africa economic relation: a double-edged sword for Africa.” *African Journal of Economic and Sustainable Development*, Vol. 7, No. 4 (2020).
- Assongu, Simplicie A. and Gilbert A. A. Aminkeng. “The economic consequences of China-Africa relations: debunking myths in the debate.” *Journal of Chinese Economic and Business Studies*, Vol. 11, No. 4 (2013).
- Buckley, Peter J, L. Jeremy Clegg, Adam R. Cross, Xin Liu, Hinrich Voss, and Ping Zheng. “The determinants of Chinese outward foreign direct investment.” *International Journal of Business Studies*, Vol. 38 (2007).
- Diaw, Diadié and Albert Lessoua. “Natural Resources Exports, Diversification and Economic Growth of CEMAC countries: On the Impact of Trade with China.” *African Development Review*, Vol. 25, No. 2 (2013).
- Hanusch, Marek. “African Perspectives on China-Africa: Modelling Popular Perceptions and their Economic and Political Determinants.” *Oxford Development Studies*, Vol. 40, No. 4 (2012).
- Foster, Vivien, William Butterfield, and Chuan Chen. “Building bridges: China’s growing role as infrastructure financier for Africa.” *Trends and Policy options*, No. 5 (2009).
- Kolstad, Ivar and Arne Wiig. “What determines Chinese outward FDI?” *Journal of World Business*, Vol. 47 (2012).
- Morgan, Pippa. “Ideology and Relationality: Chinese Aid in Africa Revisited.” *Asian Perspective*, Vol. 42, No. 2 (2019).
- Ramasamy, Bala, Matthew Yeung, and Sylvie Laforet. “China’s outward foreign direct investment: Location choice and firm ownership.” *Journal of World Business*, Vol. 47, No. 1 (2012).
- Renard, Mary-Françoise. “China’s trade and FDI in Africa.” *African Development Bank Working Paper*, No. 126 (2011).
- Tan, Xiaomei. “China’s overseas investment in the energy and resources sector:

Its scale, drivers, challenges and implications.” *Energy Economics*, Vol. 36 (2013).

Tull, Dennis M. “China’s engagement in Africa: scope, significance and consequences.” *Journal of Modern African Studies*, Vol. 44, No. 3 (2006).

Urdinez, Francisco, Gilmar Masiero, and Mario Ogasavara. “China’s quest for energy through FDI: New empirical evidence.” *Journal of Chinese Economic and Business Studies*, Vol. 12 (2014).

Zafar, Ali. “The Growing Relationship Between China and Sub-Saharan Africa: Macroeconomic, Trade, Investment, and Aid Links.” *The World Bank Research Observer*, Vol. 22, No. 1 (2007).

#### 〈인터넷 자료〉

Afrobarometer. <https://afrobarometer.org/> (검색일: 2021년 4월 9일).

Afrobarometer Merged Data. <https://afrobarometer.org/data/merged-data> (검색일: 2021년 4월 9일).

China Africa Research Initiative. <http://www.sais-cari.org/> (검색일: 2021년 4월 3일).

Deborah, Brautigam, Jyhjong Hwang, Jordan Link, and Kevin Acker. “Chinese Loans to Africa Database,” Washington, DC: China Africa Research Initiative, Johns Hopkins University School of Advanced International Studies. (2019) <http://www.sais-cari.org/research-chinese-loans-to-africa>

Forum on China-Africa Cooperation. <http://www.focac.org/eng/> (검색일: 2021년 4월 3일).

IMF Direction of Trade Statistics. <https://data.imf.org/> (검색일: 2021년 4월 9일).

UN Comtrade. <https://comtrade.un.org/> (검색일: 2021년 4월 3일).

World Bank Governance Indicators. <https://info.worldbank.org/governance/wgi/> (검색일: 2021년 4월 9일).

[부록]

<표 7> 미시 데이터(개인 단위)를 통한 실증분석 결과(OLS, 국가 고정효과)

	(1)	(2)	(3)	(4)	(5)
Age	-0.009**	-0.010**	-0.008*	-0.013***	-0.013***
	(0.004)	(0.004)	(0.004)	(0.004)	(0.004)
Gender	0.047***	0.037***	0.037***	0.039***	0.038***
	(0.011)	(0.011)	(0.011)	(0.011)	(0.011)
Education	-0.047***	-0.058***	-0.060***	-0.058***	-0.057***
	(0.007)	(0.007)	(0.006)	(0.007)	(0.007)
Economy (country)	0.034***	0.035***		0.036***	0.035***
	(0.006)	(0.005)		(0.006)	(0.006)
Economy (personal)	0.012**	0.011*		0.010*	0.010*
	(0.006)	(0.006)		(0.006)	(0.006)
Satisfaction of democracy	0.108***	0.100***		0.100***	0.100***
	(0.006)	(0.006)		(0.006)	(0.006)
Freedom perception from violence	0.040***	0.034***		0.034***	0.034***
	(0.006)	(0.005)		(0.005)	(0.005)
China's influence		0.778***	0.788***	0.777***	0.777***
		(0.014)	(0.014)	(0.014)	(0.014)
National issue: economy		-0.01	-0.015		-0.009
		(0.012)	(0.012)		(0.012)
National issue: Infrastructure		0.006	0.019		0.006
		(0.016)	(0.016)		(0.016)
Investment priority: infrastructure		0.035**	0.043***		0.034**
		(0.016)	(0.016)		(0.016)
Constant	3.298***	2.748***	3.308***	2.750***	2.750***
	(0.035)	(0.036)	(0.026)	(0.038)	(0.038)
Observations	39,914	39,914	39,914	39,914	39,914
R-squared	0.017	0.09	0.076	0.09	0.09
Panel number	35	35	35	35	35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 p<0.01, \*\* p<0.05, \* p<0.1)

**<표 8> 미시 데이터(개인 단위)를 통한 실증분석 결과**  
(Ordinal logistic regression 순차형 로지스틱)

	(1)	(2)	(3)	(4)	(5)
<i>Age</i>	-0.052***	-0.055***	-0.052***	-0.055***	-0.056***
	(0.007)	(0.007)	(0.007)	(0.007)	(0.007)
<i>Gender</i>	0.143***	0.124***	0.121***	0.139***	0.135***
	(0.019)	(0.019)	(0.019)	(0.019)	(0.019)
<i>Education</i>	-0.248***	-0.235***	-0.241***	-0.228***	-0.213***
	(0.01)	(0.01)	(0.01)	(0.011)	(0.011)
<i>Economy (country)</i>	0.084***	0.090***		0.093***	0.091***
	(0.009)	(0.009)		(0.009)	(0.009)
<i>Economy (personal)</i>	0.027***	0.021**		0.022**	0.021**
	(0.009)	(0.01)		(0.01)	(0.01)
<i>Satisfaction of democracy</i>	0.155***	0.139***		0.139***	0.139***
	(0.01)	(0.01)		(0.01)	(0.01)
<i>Freedom perception from violence</i>	0.028***	0.021**		0.021**	0.022**
	(0.009)	(0.009)		(0.009)	(0.009)
<i>China's influence</i>		1.404***	1.414***	1.408***	1.402***
		(0.024)	(0.024)	(0.024)	(0.024)
<i>National issue: economy</i>		-0.195***	-0.197***		-0.185***
		(0.02)	(0.02)		(0.02)
<i>National issue: Infrastructure</i>		0.071**	0.083***		0.064**
		(0.028)	(0.028)		(0.028)
<i>Investment priority: infrastructure</i>		-0.028	-0.028		-0.029
		(0.027)	(0.027)		(0.027)
<i>Constant cut1</i>	-2.329***	-1.504***	-2.317***	-1.329***	-1.388***
	(0.058)	(0.061)	(0.045)	(0.065)	(0.066)
<i>Constant cut2</i>	-1.328***	-0.465***	-1.286***	-0.290***	-0.349***
	(0.056)	(0.059)	(0.043)	(0.064)	(0.065)
<i>Constant cut3</i>	-0.831***	0.071	-0.754***	0.246***	0.188***
	(0.056)	(0.059)	(0.043)	(0.064)	(0.065)
<i>Constant cut4</i>	0.988***	2.041***	1.200***	2.213***	2.160***
	(0.056)	(0.06)	(0.043)	(0.065)	(0.066)
Observations	39,914	39,914	39,914	39,914	39,914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 p<0.01, \*\* p<0.05, \* p<0.1)

<표 9> 기술 통계량(거시 데이터 분석)

Variable	Obs	Mean	Std. Dev.	Min	Max
<i>Export<sub>c</sub></i>	35	0.7375441	0.1677556	0.383954	0.930193
<i>Import<sub>c</sub></i>	32	7.320103	20.50513	-1	115.6783
<i>Trade<sub>c</sub></i>	36	0.1738611	0.2231603	-1	0.4756
<i>China_trade<sub>c</sub></i>	36	0.9021528	2.711742	0	14.6696
<i>China_FDI<sub>c</sub></i>	36	3.75E+08	4.98E+08	-2.32E+08	1.61E+09
<i>China_loan<sub>c</sub></i>	36	1042.806	1531.047	0	7111
<i>China_revenue<sub>c</sub></i>	36	4475.553	6708.735	5.1	33238
<i>Chinese_workers<sub>c</sub></i>	36	21262.08	54891.32	63	332659
<i>Stability<sub>c</sub></i>	36	0.8045366	0.5694995	0.0724589	2.429571
<i>Effectiveness<sub>c</sub></i>	36	0.6878268	0.4182225	0.2575857	2.464988
<i>Law<sub>c</sub></i>	36	0.7496237	0.3817742	0.3097467	2.040094
<i>Corruption<sub>c</sub></i>	36	0.7451043	0.42773	0.260568	2.226173

<표 10> 기술 통계량(미시 데이터 분석)

Variable	Obs	Mean	Std. Dev.	Min	Max
<i>Image<sub>ic</sub></i>	40005	3.792726	1.213666	1	5
<i>Age<sub>ic</sub></i>	39940	2.605633	1.379052	1	6
<i>Gender<sub>ic</sub></i>	40005	0.535808	0.4987224	0	1
<i>Education<sub>ic</sub></i>	39978	2.611761	0.9611503	1	4
<i>National_economy<sub>ic</sub></i>	40005	2.614848	1.256794	1	5
<i>Personal_living<sub>ic</sub></i>	40005	2.767979	1.196794	1	5
<i>Democracy<sub>ic</sub></i>	40005	3.402275	1.016109	1	5
<i>Violence<sub>ic</sub></i>	40005	3.147582	1.075198	1	4
<i>CHN_influence<sub>ic</sub></i>	40005	0.8121985	0.3905585	0	1
<i>Self_employed<sub>ic</sub></i>	40005	0.4739158	0.4993254	0	1
<i>Private<sub>ic</sub></i>	40005	0.1542557	0.3611982	0	1
<i>NGO<sub>ic</sub></i>	40005	0.0185727	0.1350118	0	1
<i>Government<sub>ic</sub></i>	40005	0.0928384	0.2902095	0	1
<i>Unemployed<sub>ic</sub></i>	40005	0.2297463	0.4206749	0	1
<i>Economy<sub>ic</sub></i>	40005	0.4405949	0.4964647	0	1
<i>Infrastructure<sub>ic</sub></i>	40005	0.1579303	0.3646802	0	1
<i>Public_utility<sub>ic</sub></i>	40005	0.1434821	0.3505682	0	1

[ABSTRACT]

## African Perceptions of China and Determinants: Empirical Analysis through Afrobarometer<sup>†</sup>

**Yoo-Duk Kang** | Associate Professor, Language and Trade Division,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Tae-Hoon Lim** | Assistant Professor, Language and Trade Division,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China made intensive investments in Africa to secure underground resources, and after the 2000s, it entered the African infrastructure market by combining loans and construction projects. Today, the China-Africa trade-investment relationship reflects China's policy toward Africa. This study examines the image of Africans about China through data, and conducts empirical analysis by dividing the determinants into micro and macro dimensions.

As a result of analyzing macro data, it was found that the inflow of trade and investment to China had little effect on Africa's image of China. On the other hand, the introduction of loans from China was found to have contributed to a positive perception of China, and the lower the institutional level, the higher the positive perception of China.

As a result of analysis through micro-data, various variables related to individual characteristics or perceptions explained the formation of a personal image of China relatively clearly. The younger the age, men than women, and the lower the education level, the more clearly they had a positive image of China. The more

---

† This work was supported by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Research Fund.

positively the economic situation was evaluated and the more positively the political situation was evaluated, the better the perception of China was. If China's influence over the country is high, it is found that there is a strong tendency to have a positive image of China. However, since the explanatory variable itself is derived based on the results of the survey, when analyzing the results of the empirical analysis, a complementary approach is necessary through a qualitative case study.

---

Key Words: China, Africa, Perceptions, Afrobarometer, Regressions

투 고 일: 2021. 04. 30  
심 사 일: 2021. 05. 18  
게재확정일: 2021. 05. 28

